

STORY 04

강대, 우리 반 이야기
(재연)

김정인
[아주대 의예과]

이재용
[가톨릭대 의예과]

조영주
[고려대 의예과]

천성우
[중앙대 의예과]

< 강남대성학원 선택 이유 >

조인 선생님
우리 얼마 만에 만나는 거냐?

정인
석달? 녀달?

조인 선생님
서너 달? 수능 끝난지가..

정인
거의 다섯 달 됐죠. 다섯 달째

재용
거의 반년 됐네.

조인 선생님
꽤 됐구나?
나는 너희들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하는데

재용/영주
저도 기억해요/저도 기억나요

정인
전 기억 안 나요

조인 선생님
네가 그래서 문제야~ 네가 나한테 맨날 맞는 이유야 그게(웃음)
작년 우리 반 애들 다 잘 돼서. 재용이 카대 의대 가고, 영주는 고대 의대 쓸 때 쿨하게 그냥 안정 점수니까 고대 하는데,
그때 사실은 굉장히 감사했어. 성우는 중대 의대가 정말 인재를 데려갔다고 생각해. 그리고 정인이, 아주대 의대에 큰
기둥으로 써 재수를 고민하는 후배들한테 내가 재수학원 선택할 때 얘기하면 좋을 거 같아.
나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너희들은 개강 날 내 앞에 있었지, 왜 온 줄은 내가 모르잖아.

영주

저는 사실 자기 절제력이 떨어져서 담임 선생님이 있는 재중반을 선택했던 것 같고, 가장 입시 결과가 좋은 강대를 선택했죠.

재용

제가 왜 강대를 왔냐면, 저는 국어가 4등급이 떠서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인 선생님

4등급이야?

재용

강대가 국어 커리큘럼이 시스템적인 면에서 좋다고 들어가지고 강대를 선택하게 됐고요. 독재는, 제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시간 변화를 딱딱 맞춰주는 학원을 일부러 오게 된 것 같아요.

성우

저는 사실 이 친구들보다 조금 멀리 살았잖아요. 근데 강대가 셔틀이 있어서 리듬이 깨질 일이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선택한 것 같아요

조인 선생님

셔틀! 그렇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꾸준히 강제로 타는 순간 일단 밤 10시에 셔틀 돌아갈 때까지 집에 갈 방법이 없어. 강제로. 다 얘기했고 정인이도 들어는 봐야 하지 않을까?

정인

저는 고민을 안 했어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근성이 있어서...그래서 혼자 독재하면 결국에는 공부 안 하고, 실 때 쉬고, 할 때만 하게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수업 듣는 게 편하고 경해진 시스템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강대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 담임선생님에 대하여 >

조인 선생님

내가 했던 말 중에 (좀 길긴 했지만) 조회시간 말 중에 생각나는 말들이 있냐?

정인

커피 달라구(웃음)

조인 선생님

아침에? 아침에 조회 들어와서 커피 달라구?
추억을 만들어주려고~ 아유 과도한 카페인 먹을 까봐~

정인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죠~

조인 선생님

지금도 추억이 될 수 있어. 넌 먹을 거 밖에 생각이 안 나냐?
내가 일 년 동안 조회 들어가서 진짜 계~~~속 있어서(?) 일 년을 갖는데?!

정인

사실 도움은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반은 매일 빠짐없이 선생님이 조회 들어와서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별말이 아니었더라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게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였든.

재용

솔직히 초반에는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지,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웃음) 6평 끝나고 9평 가다 보니깐, 그때그때 필요한 말들 있죠? 제가 루즈해질 때 좀 더 타이트해질 수 있고, 제가 낙심하고 있을 때 좀 더 힘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그런 말씀들은 돌이켜보면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영주
선생님께서 시기별로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려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제가 좀 놀려고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뜨끔하면서 좀 고쳐지는 면도 있었죠.

성우
3-4월쯤에 이 말씀 하셨잖아요. 눈 깜빡하면 “내일 수능 잘 보렴” 이 얘기 한다는 게. 수능 전날 되게 크게 와닿은 것 같아요.

정인
갑자기 6평, 갑자기 9평

조인 선생님
“내일 수능 잘 보렴”, “다음 주 수능 잘 보렴”, 다 전주에 그 얘기 할 때 애들이 다 덜컹해. 다음 주 수능이라는 것에

< 가장 좋았던 선생님 >

조인 선생님
기억나는 선생님 있어?
나 아니어도 돼~ 천천히 얘기해 괜찮아.

영주
솔직히 가장 기다려졌던 과목은 한국사 선생님 수업이었죠.

한국사 선생님 ‘조인’
그렇지

영주
그러기도 하고 국어선생님들 중에 조남현 선생님이라고, 제가 문학 영역이 취약했는데 (제가 선생님보다는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을 잘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잘 습득할 수 있게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조인 선생님
문학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됐구나.

영주
그래서 국어영역 성적을 올리는데 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성우
저는 심용선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영주/정인/재용
(웃음)

조인 선생님
이 웃음의 의미는 뭐야?

재용
이유가 대충 짐작이 가서

성우
그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물론 많이 해주시기도 하는데, 풀이가 진짜 다양해요. 한 문제를 푸는 풀이가

재용
전 허호승 선생님이라고

조인 선생님
수학 선생님!

재용

왜냐면 허호승 선생님이 수학 그래프를 막 몸짓 발짓으로 다 설명하시거든요.

$X^2 \sin 1/x$ 라는 그래프에 $x=0$ 에서 미분 가능성과 $f(x)$ 의 $x=0$ 에서 연속성을 따지는 게 있었거든요.

나름 수학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한 번 손짓 발짓으로 다 설명을 하시는데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게 딱 느낌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때 ‘아! 이 선생님 진짜구나’ 이게 딱 느껴졌어요.

정인

전 국어 한상민 선생님 되게 좋았어요.

재용/영주/성우

아~ (모두 공감)

정인

일단 문법 틀 잡는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고전소설 설명하시는 게 너무 재밌고 인상 깊어서,

재용

또, 선생님이 설명한 게 또 (수능에)나와가지고.

정인

맞아요 이번 수능에 나왔어요.

재용

중요하다고 한 게!

조인 선생님

오. 적중이 됐어?

재용

네, 적중이 된 거예요~ 사실 전 이거를 왜 강조하지? 이거 안 나올 거 같은데? 했는데 딱 나온 거예요. 수능에!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조인 선생님

우리 반에 들어왔던 선생님들하고 우리 반은 참 잘 맞았던 거 같아.

<슬럼프 극복 방법>

조인 선생님

재수 생활할 때 슬럼프? 슬럼프 때 어떤 생각 하면서 했는지.

성우

잘 봤던 시험지를 다시 풀었던 거 같아요. 자신감도 좀 찾고.

조인 선생님

그 자신감 중요한 거 같아

재용

‘내가 국어를 생각보다 못 하진 않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시험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조인 선생님

강대모의고사가 많으니깐 한 번 이상은 잘 봤겠지(웃음)

재용

다양한 문제를 계속 풀잖아요. 한 기출문제만 특화되지 않고, 이런 문제도 풀리고, 저런 문제도 풀리고. 그래서 수능 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강대 시스템적인 부분이.

조인 선생님

‘이런 어려운 문제도 풀었는데’

재용

그러니깐요. 그게 되게 위안이 돼요. 수능날 가서 ‘이 정도는 내가 풀 수 있어!’

성우

고3때부터 국어 과목은 좀 널뛰기가 심했어요.

잘 볼 때는 뭐 100점 근처까지 갔다가도, 못 보면 3등급 끝자락? 이렇게까지 하다가, 또 6월엔 백분위 99점이 났다가, 9월엔 또 2등급 끝자락까지 갔다가 끝까지 고생했던 거 같아요.

조인 선생님

기복이 있으면 다들 그렇지 않을까?

영주

제가 기복이 심해서 집중이 잘 되는 날은 저녁까지 집중이 쭉 잘 되는데, 한 번 마음이 흐트러지면 남은 시간을 건디는 걸 되게 못했거든요. 강남대성 시스템이 주말엔 자율이잖아요. 그래서 두타임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정인

공부할 땐 하고, 실 타임은 정해놓고

조인 선생님

고대 의대를 가니깐 그런 여유가 나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열심히 해야 돼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인

제가 과탐 성적이 안 올라가지고 혼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 공부법이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영주한테 많이 물어보고, 과탐 50 50! 애(영주) 잘하잖아요. 옆에서 영주 하는 거 좀 따라 해보고 했죠. 그래서 과탐 성적 많이 올릴 수 있었고 영주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됐죠

<우리 반 과탐의 신은 누구?>

조인 선생님

‘이 과목은 이 친구한테 물어봐라?’ 작대기 한 번 해볼까? 하나만 해 보자!
예를 들어 과탐! 이 중에서 이 친구가 과탐 공부법을 잘 알 거 같다. 하나 둘 셋!
오~ 이러면 몇 표야?(성우2 : 영주2 상황) 너네 둘이 얘기해보면 되겠네. 성우 과탐 잘했었니?

재용

성우가 물리 과목을 예를 들어서 1등급 컷이 38인데 재 혼자 만점인 거예요.

성우

강대모의고사 때 그러긴 했어요

조인 선생님

물리! ? 수능 때 말고? 수능 땐 너무 쉬웠지.

재용

되게 잘했어요. 물리 같은 거. 머리가 좋은 건가

조인 선생님

난 영주 기억나는 게 9평 때 애가 과탐 50 50 맞는 거 보고, 9평 때 난이도가 지구과학 I 이 어려웠어.
수능도 그렇게 쉽지 않았단 말이야. 지구과학 I 어려웠거든.
근데 수능 때도 42.1컷이었을 때도 50 나왔다고. 그 힘이! 정시에서 고대 의대 가는데 큰 힘이 된거지.
과탐 중요하거든. 집안에 핏줄이 좋잖아. 조씨 집안!!(웃음)

정인(불편)

<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

조인 선생님

강대 생활하면서 기억나는 공간? 일?이 있었다면?

정인

나는 그냥 재미있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재용이가 과일 많이 가져와서 친구들이랑 나눠먹고 그랬을 때, 선생님이 과일 맛있어 보인다고 장난 치신 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너(재용)가 설명해봐. 네가 당했잖아

재용

선생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가 여기 있는데 뒤쪽에 쓰레기가 많다고 하면서 주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보고 아무리 봐도 없길래 어리둥절해있는데, 애들이 다 웃는 거예요.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제 가방에서 간식을 빼가셔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조인 선생님

난 자습 지도하느라 입실 했는데, 혹시 거기에 독극물이 있을까 봐 시식을 먼저 해본 거지.

재용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웃음)

정인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영주랑 제가 약간..어떻게 보면 분위기 흐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했던 게 저한테 힘이 됐던 거 같아요.

재용

명*이가 선생님 성대모사 되게 잘했거든요~

영주

갑자기 선생님이 꼭 하시는 말들 있잖아요~ “들어가라!” 이런 말들? 그런 거를 명*이가 했는데, 애들이 다 조인 선생님 선생님인 줄 알고 교실로 들어가는 거예요~(웃음) 속았죠. 당황스러웠어요.

조인 선생님

몰랐네? 효과 있는데?

< 자연 10반 분위기에 대하여 >

조인 선생님

강대에서 선생님들도 다 그러지만 교실 내에서 떠들면 안 되니깐 우리 반 조용하지 않았냐?

정인

교실은 진짜 조용했거든요?

재용

교실 내에선 조용했어요.

정인

선생님이 워낙 떠드는 애들 잘 케어해주셔서 다른 반에 비하면 저희는 정말 조용했죠.

재용

...사실 옆 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정인

(기억남) 선생님이 자습시간에 와서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조인 선생님

아~ 문 열어놓고 입실 지도했을 때

정인

예를 들어 5시에 선생님이 애들 자습하는 거 보러 왔는데, 몇 명 자고 있으면 애들 깨우시면서 재밌는 얘기 좀 해주시고, 이런저런 얘길 해주시는데요. 그때 물론 자습시간에 문 닫고 했지만 큰 소리로 얘기하시고 저희도 다 같이 크게 웃고 하나까 옆 반 애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재네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하하 호호 하냐고.

조인 선생님

보충수업이라고 생각해야지 뭐..

정인

우리 반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애가 누구냐고 하면 다 유**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재용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 원래 몇 프로는 자고 몇 프로는 그냥 멍 때리고 있고, 수업 준비하고 있고 그러는데 유**은 항상 아침에 더 일찍 와가지고 제일 반에서 열심히 하고요. 쉬는 시간에도 항상 공부하고 있고 한 번도 흐트러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를 보고 되게 많이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조인 선생님

유**이 기억하지. 참 잘하고 열심히 해. 반 분위기를 보면 힘이 되는 애야.

<재수 생활 중 힘들었던 점>

조인 선생님

작년에 재수 하면서 아마도 크게 작게 다 있었을 것 같은데, 힘든 시기? 공부든 생활이든 힘든 점이 있었을까?

재용

저는 사실은 '나 무조건 수능을 잘 봐서 메이저 의대에 갈 거야' 이 생각 하고 있었는데, 불확실하잖아요. 미래가 결정이 안되잖아요. '나 수능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진퇴양난처럼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한 거요.

성우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모의고사를 자주 보니까 항상 잘 볼 수가 없거든요.

못 보면 '갑자기 왜 이러지, 요즘 공부를 덜 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금방 또 다음 모의고사가 오니까 그거 보면 또 까먹고, 또 잘 본 거 금방 까먹고 하면서 금방 시간이 지나갔던 거 같아요.

조인 선생님

성우는 그래도 잘 지나간 편인 거 같아.

재용

저는 자습하는 도중에 맹장이 터져서 앰블런스로 실려갔거든요.

그때 6평 보고 성적이 기대했던 것 만큼 안 나와서 되게 힘들었는데 한 달 동안 몸도 아프고 또 성적까지, 잘하던 과목마저 빼끗하고, 못하던 과목은 오르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거 같아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조인 선생님

건강이 참 중요한 거 같아. 또 하다 보면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한 거 같고. 나중에 의료인 모임 해도 꽤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반 애들 한 번 잘 모아보면.

정인

밥은 쌤이 사는 걸로 !?!

조인 선생님

내가 사는 걸로~ 단 조건은 정인에만 더치페이! 이걸로 끝내자 한 명은 뜯어먹을 거야. 그리고 대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 생명 다루는 일이잖니. 책임감 갖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 중요한 의대 가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자. 고마워~

정인/재용/영주/성우

수고하셨습니다.